



## 여수산단 나눔경영 불황에도 계속된다

국내최대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 국가산단내 주요기업들이 영업이익률과 유가하락 등 기업경영의 어려움 속에도 지역 사회공헌 활동은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여수산단의 총 생산액은 100조원에 육박했지만 기업경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영업이익률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중국의 수요 급감과 미국·중동의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도약, 중동발 유가하락 등 악재가 겹치면서 여수산단 주요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1 사랑의 연탄 배달
- 2 김장 담그기 봉사
- 3 소외이웃에 난방유 배달
- 4 예울마루와 함께하는 객석나눔 행사
- 5 장수 사진 촬영 봉사
- 6 한가위 사랑의 온정나누기

◇어려움수록 빛나는 '나눔' = 여수산단 내 LG화학 여수공장과 GS칼텍스, 롯데케미칼 등 주요기업들은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해 여수산단 기업 총 190개 봉사단(연간 봉사자 2만5628명)이 11만7806시간을 지역사회 봉사와 공헌사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총 215억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예술분야 지원 등 사회봉사 부문이 115억원, 장학금 등 기부금에 65억원, 기타 지원금 3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6년 여수산단 최초로 사회봉사단을 기증했던 LG화학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현재 2400여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11개 봉사단·27개 동호회 사회봉사단을 결성, 연 600회 이상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1998년 쌍봉 종합 사회복지관을 여수시에 기증했던 LG화학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 건립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07년 여수 미평초와 화양초 도서관 기증을 시작으로 2011년 해동누리 도서관, 2013년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2014년 여수 석유화학고 '희망 가득한 도서관' 등을 건립했다. 특히 직원들 스스로 '트윈 엔젤 기금' 모금에 나서 매월 1500만원이 넘는 후원금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 회사가 동일금액을 지원하는 '매칭그랜트'가 더해져 3000만원이

### 산단업체 190개 봉사단 운영 연간 2만5628명 활동 집수리 등 소외이웃 돕고 장학·문화사업 지원 앞장

넘는 기금이 적립, 지역사회에 쓰여 지고 있다.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 = 여수산단 기업들은 지역인재 채용과 육성에도 적극적이다. 국내 11곳의 공장 중 가장 큰 규모를 갖춘 LG화학 여수공장은 2400여 명의 직원 중 여수·순천·광양 등 광양만권 출신이 60%를 훨씬 넘는다. 전문기술직 분야는 최근 3년간 약 80% 수준까지 육박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수시민 되기 운동'을 통해 여수시 인구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여수산단의 유일한 정유사인 GS칼텍스는 중동발 저유가 여파로 올해 큰 폭의 적자가 난 상황이지만 가장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S칼텍스는 "지역기업으로서 소외이웃 지원, 장학·교육 사업, 문화예술 지원, 환경보전 활동, 사회봉사단 활동 등 5개 영역에서 지역사회공헌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GS칼텍스가 11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2년 5월 문을 연 'GS칼텍스 예울마루'는

개관 이후 지금까지 420회가 넘는 공연으로 31만명의 관객을 유치했다. 독거노인 등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GS칼텍스 사랑나눔터'는 지난 2008년 처음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수십억원이 투입돼 5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 급식에 참여한 봉사자수만 지금까지 2만6000명이 넘는다. 또 수역원을 지원해 운영하는 'GS칼텍스 희망에너지교실' 활성화로 가정형편상 소외됐던 아이들의 꿈과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다. '지역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과 섬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70억원 가량을 지원하고, 집수리 등 GS칼텍스 사회봉사단의 다양한 지역봉사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이 밖에 (주)한화, 롯데 케미칼, 여천NCC, 삼성SDI, 삼남석유화학, 대림, 한국바스프 등 주요기업들도 지역민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사내 봉사단의 꾸준한 봉사활동은 물론 노인복지 인프라 조성과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지역 소외계층과 청소년 교육사업을 위

한 지원 등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여수산단 기업들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례 발표회도 열렸다.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여수공발협)는 지난 18일 여수산단 주요기업들이 펼쳐온 사회공헌 사례발표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회는 여천NCC 등 주요기업 10개사들이 각자 진행해온 지역사회 공헌 사례와 철학을 연계 벤치마킹해 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여수공발협 박효준 사무국장은 "그동안 기업들이 펼쳐온 지역사회공헌 활동이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면서 지역에 잘 알려지지 못했다"며 "이번 사례 발표회를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수준높은 사회공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산단 기업들이 '생색내기식 사회공헌' 보다는 진정성있는 봉사 활동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수산단 관계자는 "보여주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은 결국 지역민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진정성과 적극성을 가진 기업들이 더욱 모범이 돼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고 채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특별위원회 구성

1월부터 9개월간 활동 9명으로 구성했고, 내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민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정부의 여수 프로젝트 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공적개발로도의 전환 등 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을 수정·보완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박람회 정신과 가치에 맞는 사후 활용 계획 수립을 요청해 나갈 방침이다. 특별위원회는 정옥기 위원장 등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항만청 '찾아가는 해양교실' 인기

청소년에 해양 중요성 알려 특히 '신비한 해양생물의 세계'를 주제로 여수 신기초등학교에서 열린 해양교실에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몰려 해양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해양수산부와 여수항만청의 업무 소개와 함께 해양분야 전문가의 강연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해양교실'은 강연 도중 학생들이 직접 해양 관련 퀴즈를 풀어 보는 시간을 마련, 높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 오윤열 청장은 "전문 강사들이 펼치는 쉽고 재미있는 강의의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해양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해양교실'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 여수고용청 새 청사 웅천지구에 문열어

여수 고용노동지청 새청사가 웅천지구에 문을 열었다.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9일 여수시 웅천 택지개발지구에 새로 마련한 신청사에서 개청식을 가졌다. 이날 개청식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주철현 여수시장, 주영순 국회의원, 노사 대표,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여수시 문수동에 있던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낡은 시설과 비좁은 공간 때문에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여수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해 8월 웅천 택지개발지구 6652㎡의 부지에 건물 전체면적 3025㎡,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월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창평	224-8212
치평	376-6511
하남	682-8112
화정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26-160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